

즉시 보도용

2025년 4월 9일

Contact: lamayornews@lacity.org

배스 시장, 예정보다 수개월 앞서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주택 재건 시작 발표

로스앤젤레스 – 캐런 배스 시장은 오늘,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주택 재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며, 시가 허가를 발급한 두 곳의 현장을 방문했다. 팰리세이즈 산불 발생 57일 만에 첫 건축 허가가 발급되었으며, 이는 과거 캠프 산불(123일)나 울시 산불(230일)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다. 배스 시장은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난 복구 작업을 가속화했으며, 이는 캘리포니아 현대 역사상 가장 신속한 복구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. [오늘 행사 사진과 영상은 이곳에서 확인.](#)

배스 시장은 “이것은 최근 재난 역사상 가장 빠른 복구 속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. 우리는 모든 절차를 단축하고 재건을 앞당기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.”며 “팰리세이즈 주민들은 회복력을 보여주었고, 오늘 그 회복의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.”고 강조했다.

현재까지 360개 이상의 부지가 완전히 정리되었으며, 건축 허가 발급을 위한 최종 점검도 완료됐다. 잔해 제거 작업은 산불 발생 35일 만에 시작됐으며, 이는 2028년 울시 산불 당시보다 약 절반 가까이 빠르다.

주요 성과 요약

- **EPA 역사상 가장 빠른 유해물 제거:** 28일 만에 300톤 이상의 유해물질 제거 (캠프 산불 당시보다 두배 빠름)
- 기록적인 속도의 잔해 제거: 산불 발생 후 35일 만에 2단계 제거 작업 돌입
- 신속한 유틸리티 복구: 2개월 만에 물과 전기 복구(캠프 산불 당시 18개월 소요)
- 긴급 행정 명령 발동: 학교 및 보육 시설 임시 이전, 소상공인 세금 감면, 건축 허가 간소화 등
- 산사태 위험 지역 사전 강화: 1만피트 이상의 콘크리트 장벽, 6천5백개 이상의 모래주머니 설치
- 피해 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
 - 70개 이상의 정부 기관이 함께하는 재난 복구 센터 운영 - 9천5백여 가구 지원
 - 주택 재건 원스톱 센터 개소
 - 주택 청사진 제공 및 자동 재허가 시스템 도입

- 피해 가정 대상 직업, 재정, 청소년 지원 센터 4곳 운영
- 관련 조례 제정
 - 산불 피해 기업 세금 감면
 - 산불로 인한 임시 거주자를 보호하는 주거 퇴거 금지
 - 재건 관련 바가지 요금 방지
- 지속적인 지역 소통: 매주 수백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설명회 개최
- 주-연방 정부 협력: [시장 주도](#)로 새크라멘토에서 주정부 지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복구 지원 확보

자세한 내용은 recovery.lacity.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###